

인간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성공감과 유능감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정서적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에 의해 정서적 능력의 주요 요소인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더 강조되고 있다(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특히 최근 들어 매스컴에서 더 자주 보고되고 있는 우발적 범행이나 자살 등의 자극적인 사회문제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인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스스로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인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내적으로 각성되는 정서 상태와 그로 인한 행동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alkins, 1994; Shields & Cicchetti, 1997; Thompson, 1994). 앞서 언급했듯이 이 능력은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어서(이지연, 곽금주, 2010) 특히 아동의 경우 정서조절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고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다(Eisenberg, Liew, & Pidada, 2001). 또한 정서조절능력은 학업성취(Gumora & Arsenio, 2002; Howse, Calkins, Anstopoulos, Keane, & Shelton, 2003) 및 사회적 기술(Keane & Calkins, 2004)과도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은 성인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유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은 생의 초기에 시작되어 생후 1세 이전에 이미 미소나 울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Kopp, 1989). 이후 2-6세인 유아기에 들어오면 무서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불쾌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 유쾌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상황을 재해석하고 불쾌한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Thompson, 1994). 특히 4-6세의 유아들은 정서를 조절하는 이유를 일정 수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내적으로 각성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정서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Gnepp & Hess, 1986; Harris & Gross, 1988).

이처럼 유아도 정서조절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하는 정서지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유아기라는 연구결과(김종훈, 성지현, 2013; EBS 제작팀, 2012)가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능력이 이후의 정서조절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또래관계 등의 다양한 발달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유능한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와 같은 인생의 초기에 긍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발달적 특성이나 사회 적응적 양상은 보통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학령기나 사춘기가 찾아오는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능력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배주희, 2011).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유아들도 정서조절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의 기질에 근간을 두기도 하지만(Blair, Denham, Kochanoff, & Whipple, 2004) 이것의 발달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촉진된다. 즉, 아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될만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발달되며 이에 따라 외현적으로 나타나던 행동이 점점 내현화되고 조절되는 것이다 (Eisenberg, Smith, Sadovsky, & Spinrad, 2004; Kopp, 1982). 많은 연구들은 이 사회화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가장 많이 지도하고, 모델링해주며,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정은주, 2005; Bandura, 1997;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Karreman, Van Tuijl, Van Aken, & Deković, 2008).

부모의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도 특히 양육 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가 자녀의 요구와 생각에 대해 수용적으로 반응하고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는 등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바람직한 정서조절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기 보다는 권위주의적으로 강압하여 부모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거나 또는 과보호적으로 제한설정을 적절하게 제공해주지 못할 때 불안한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킨다(남은영, 박소은, 2014; 임희수, 박성연, 2002; Eisenberg, Fabes,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Goleman, 1995).

위와 같이 양육과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를 보고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1차적인 양육자라고 여겨져 왔던 어머니만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양육과 유

아기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Karreman과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도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모자 관계를 다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서지영, 2003).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개관한 방희정(2009)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어머니로 초점 맞춰져 있어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소수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마저도 아버지의 직접적 양육 개입보다는 양육에 대한 책임감에 의해 예측되는 아버지 효과 관련 보고가 주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아버지가 양육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다른 양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arke, 2002). 예를 들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신체적인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소비되는 직접적인 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준다(존 가트맨, 남은영, 2007). 또한 부모 중 아버지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자녀의 정서를 수용하고 공감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감정코치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게 되어 높은 정서지능과 정서조절능력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회성 또한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존 가트맨, 남은영, 2007).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가족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필요성에 의해서 더욱더 강조될 수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영역 중 1, 2위로 평가된 것이 바로 자녀교육문제와 가사 및 육아부담이었다(여성가족부, 2010). 또한 같은 조사에서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참여여부와 소요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 남편은 평균 9.8시간, 아내는 23.2시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2.4배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부는 양육을 서로의 공동 책임으로 여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실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는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자녀, 아버지-자녀의 2자 관계를 넘어서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는 부부공동양육(coparenting)의 개념이 등장했다. Minuchin(1974)은 가족 구조 안에서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의 통솔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 개념에 따라 McHale(1995)은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가치, 참여, 사고, 그리고 정서 등에 대해 서로 지지하고 공유하며 파트너로서 서로의 양육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부부공동양육의 개념을 관통하는 핵심 요인은 이것이 3자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즉, 부부는 자녀와 연결된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을 때 부모로서의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McHale, Kuersten-Hogan, & Rao, 2004). 또한 부부공동양육은 3자 관계의 직접

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행동과 인지적인 사고과정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일과를 계획할 때 부부가 함께 논의하여 구성하며, 서로의 양육방식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공동양육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측면과 암묵적으로 내재된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Fincham & Hall, 2005).

부부공동양육 관계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있어서 독특한 맥락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동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Munuchin, 1985)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가족체계이론에서는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부부가 함께 제공하는 부부공동양육의 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하였다(Emery, 1982). 따라서 부부공동양육은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할 때 가족 전체의 역동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부부공동양육은 개인의 성장배경이나 가치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부는 몇 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양육의 근간을 이루는 양육에 대한 신념도 상이하게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협의로 풀어 나가는 과정은 가족의 긍정적 유대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발달에 대해 갖는 양육신념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정서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정윤경, 박혜진, 2012) 부부공동양육과 자녀의 정서발달간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발달심리학적 관점

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 내는 조력자의 관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Dienhart, 2001; Dienhart & Daly, 1997; Matta & Knudson-Martin, 2006) 부부공동양육과 아버지 양육참여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Hohmann-Marriot, 2011). 부모는 서로의 의사소통이나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지지와 협력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촉진시키며 긍정적인 부부관계 또한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전환기를 맞이한 부부에게 부부공동양육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양육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Shapiro, Nahm, & Gottman, 2011), 공동양육에 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양육 참여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갈등 수준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Epstein, Pruett, Cowan, Cowan, Pradhan, Mah, & Pruett, 2015).

한편, 예전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의 양육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 가족의 역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역할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Allen & Hawkins, 1999; McHale & Rasmussen, 1998). 어머니가 공동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를 동등한 역할로 인정하고 지지하면 가족 역동이 좀 더 조화롭게 일어나고 갈등은 감소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가족 내의 갈등이 악화되고 정서적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McHale, Rao, & Krasnow, 2000).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공동관계, 그리고

자녀의 발달은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이런 부부공동양육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서양에서도 최근에서야 시작되었고 (Jia & Shoppe-Sullivan, 2011),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불어 그간 보고되어 온 부모 간 양육태도의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제 발달에 관한 연구들(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신성숙, 유영달, 2010; 하수경, 김원중, 2011)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될 때 자녀의 발달 또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양육을 직접적인 양육행동이나 태도로 정의하여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양육 일치도에 대해서도 주로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일치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김지연, 남은영, 2011) 양육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아우르는 부부공동양육의 일치유형과 방향성을 구분하고 그것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부공동양육이나 아버지 양육참여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영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유아기는 학령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에게 보다 많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며, 이후의 발달을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능력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활동적인 양육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고(존 가트맨, 남은영, 2007; Jia & Schoppe-Sullivan, 2011), 부모간의 양육행동이 일치되기

나 불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발달 양상이 달라지는 시기는 유치원 시기라는 보고(Block, Block, & Morrison, 1981)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공동양육과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미치는 영향과 부부공동양육의 일치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대구지역에 위치한 10개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3개 교회의 유아부 및 유치부에 다니는 만 3-5세 연령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532쌍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를 제외한 264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30대(169명, 64.0%)가, 학력은 대졸이상(192명, 72.7%)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도 30대가(226명, 85.6%), 학력은 대졸이상(163명, 61.7%)이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36.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5.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9.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5.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7%), 100만원 미만(0.4%) 순으로 나타났고, 맞벌이(49.6%)와 외벌이(50.4%)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134명, 50.8%)와 여아(130명, 49.2%)의 비율이 비슷했고, 연령은 만 5세(149명, 56.4%), 만 4세(78명, 29.5%), 만 3세(37명, 14%)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부부공동양육

Van Egeren과 Hawkins(2004)가 개발한 'Coparenting Scale'을 본 연구자가 먼저 편안한 후 아동심리학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사용하였다.

부부공동양육 척도는 부부공동양육 일치(10 문항), 부부공동양육 지지(5문항), 비난적 부부공동양육(6문항), 공유된 양육(8문항)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행연구(Merrifield, 2009)에서 부부공동양육 일치, 부부공동양육 지지, 공유된 양육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세 하위요인의 평균값을 지지적 부부공동양육이라는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부부공동양육 척도를 지지적 공동양육(23문항, 예 : 배우자와 나는 아이 양육에 대한 견해, 지도방식, 규칙에 대한 생각이 같다.)과 비난적 공동양육(6 문항, 예 : 배우자는 부모로서의 내 능력을 믿지 못한다.)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항상 그렇다)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있

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문항을 부부가 각각 평가하며 부부공동양육 지지 문항과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문항은 배우자에 의해 평가된 값으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지지적 부부공동양육이 .88(아버지)/.91(어머니), 비난적 부부공동양육이 .86(아버지)/.83(어머니)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1999)가 개발한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 중 양육참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발달적지지(11문항, 예 :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돌보기 및 지도(9문항, 예 : 자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본다.), 함께하는 활동(6문항, 예 : 자녀와 공놀이나 신체놀이를 한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항상 그렇다)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아버지가 본인의 양육참여 정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발달적 지지가 .85, 돌보기 및 지도가 .80, 함께하는 활동이 .80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변안한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2008)의 척도를 박혜성(2011)이 사용한 것을 유아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서통제(8문항, 예 :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와 불안정/부정적(16

문항, 예 :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방해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인 감정(화, 두려움, 좌절, 피로움)을 나타낸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항상 그렇다)이고, 정서통제 요인의 점수가 높고, 불안정/부정적 요인의 점수가 낮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는 교사나 어머니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 되었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정서통제가 .60, 불안정/부정적은 .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 실시하였다.

결 과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

표 1.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N=264)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 ²	F
정서통제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48	.27	4.57***	.20	33.02***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21	-.27	-4.46***		
불안정/부정적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16	-.09	-1.42	.21	33.99***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35	.42	6.96***		

***p<.001

력은 20%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3.02, p<.001$), 아버지의 지지적 부부공동양육($\beta=.27, p<.001$)과 비난적 공동양육($\beta=-.27, p<.001$)이 정서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불안정/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21%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3.99, p<.001$), 아버지의 비난적 부부공동양육($\beta=.42, p<.001$)이 불안정/부정적 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정/부정적 정서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8%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0.92, p<.001$), 어머

표 2.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N=264)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 ²	F
정서통제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43	.23	3.56***	.08	10.92***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07	-.08	-1.26		
불안정/부정적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19	-.10	-1.47	.11	16.00***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24	.28	4.34***		

***p<.001

니의 지지적 부부공동양육($\beta=.23, p<.001$)이 정서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불안정/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1%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6.00, p<.001$), 어머니 비난적 부부공동양육($\beta=.28, p<.001$)이 불안정/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정/부정적 정서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3%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84, p<.05$), 돌보기 및 지도($\beta=.20, p<.05$)가 정서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돌보기 및 지도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불안정/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5%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F=4.43, p<.01$), 하위요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N=264)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 ²	F
정서통제	발달적 지지	-.03	-.02	-.28	.03	2.84*
	돌보기 및 지도	.22	.20	2.46*		
	함께하는 활동	-.02	-.02	-.21		
불안정/부정적	발달적 지지	-.01	-.01	-.13	.05	4.43**
	돌보기 및 지도	-.18	-.16	-1.95		
	함께하는 활동	-.08	-.08	-.97		

* $p<.05$, ** $p<.01$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

부부공동양육의 일치유형을 지지적 일치, 비난적 일치,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아버지-지지적, 어머니-비난적),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어머니-지지적, 아버지-비난적)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지지적 부부공동양육의 평균값에서 비난적 부부공동양육의 평균값을 차감한 점수에 대해 그 점수의 전체분포의 중앙값보다 큰 경우는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유형으로, 중앙값보다 작은 경우는 비난적 부부공동양육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지지적 일치유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앙값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비난적 일치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아버지는 지지적 유형, 어머니는 비난적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 유형으로, 어머니는 지지적 유형, 아버지는 비난적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의 전체 빈도수는 표 4와 같다.

비난적 일치유형이 101명(38.26%)으로 가장

표 4. 부부공동양육의 일치유형 (N=264)

변인	빈도	백분율(%)
지지적 일치	94	35.60
비난적 일치	101	38.26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	37	14.02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	32	12.12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지적 일치유형이 94명(35.60%),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유형이 37명(14.02%), 어머니만 불일치유형이 32명(12.12%)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에 따른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차이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는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3.17, p<.001$), 이에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통제는 지지적 일치유형과 비난적 일치유형,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 유형과 비난적 일치유형, 지지적 일치유형과

표 5.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에 따른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차이 (N=264)

변인	지지적 일치 ^a	비난적 일치 ^b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 ^c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 ^d	F	Scheffe
	M(SD)	M(SD)	M(SD)	M(SD)		
정서통제	3.89(.37)	3.60(.34)	3.82(.35)	3.62(.32)	13.17***	a,c>b a>d
불안정/부정적	2.03(.43)	2.38(.36)	2.13(.29)	2.21(.33)	13.98***	b>a,c

*** $p<.001$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통제는 비난적 일치유형($M=3.60$)에서 보다 지지적 일치유형($M=3.89$)과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유형($M=3.82$)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유형($M=3.62$)보다 지지적 일치유형($M=3.89$)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부부공동양육 일치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98, p<.001$). 이에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비난적 일치유형과 지지적 일치유형, 비난적 일치유형과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지지적 일치유형($M=2.03$)과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유형($M=2.13$)에서 보다 비난적 일치유형($M=2.38$)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만 3, 4,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공동양육과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양육방식이 배우자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며 양육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유아의 정서를 잘 조절하며, 반대로 아버지가 배우자의 양육에 대해 불만족하며 비난할수록 유아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 수준

이 높아졌다.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방식이 배우자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며 양육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유아의 정서를 잘 조절하며, 반대로 어머니가 배우자의 양육에 대해 불만족하며 비난할수록 유아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배우자의 참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혜숙, 1997)와 일치한다. 또한 지지적인 부부공동양육은 가족의 안전감 수준을 향상시켜 자녀의 내적 통제력과 정서적 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난적 부부공동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부정적으로 협력하는 습관과 비일관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을 그대로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불안한 정서상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연구결과들(Davies & Cummings, 1994; Karreman et al., 2008; McHale, Kuersten, & Lauretti, 1996; McHale & Rasmussen, 1998)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부부공동양육은 부모가 서로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직접적인 양육행동과 부부관계의 질,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hapiro, Nahm, & Gottman, 2011) 양육관련 이슈를 다룰 때 부모-자녀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동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

히 아버지가 돌보기 및 지도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정서통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도구에서 돌보기 및 지도는 양육참여 중에서도 자녀와 매일의 일상을 같이 하는 태도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즉, 자녀의 일상생활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소한 주제라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의 자녀는 스스로의 정서를 잘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돌보기 및 지도 점수가 높은 아버지의 유아는 정서조절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영미, 2008)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변인 중 생활지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미자, 2003; 홍혜미, 2010)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이 정서능력의 일부인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녀의 공감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는 요인은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였다(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 즉, 자녀가 유아일 때 아버지가 자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자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였는지의 여부가 무려 26년 이후 성인이 된 자녀의 공감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아버지가 이벤트성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던지 일시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매일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한 이후의 정서적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부공동양육의 일치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중 정서통제는 비난적 일치집단보다 지지적 일치와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집단(아버지-지지적, 어머니-비난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만 지지적 불일치집단(어머니-지지적, 아버지-비난적)보다 지지적 일치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부정적 정서는 지지적 일치와 아버지만 지지적 불일치집단(아버지-지지적, 어머니-비난적)보다 비난적 일치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지지적인 부부공동양육을 보이거나 아버지만 지지적인 부부공동양육을 보이는 경우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비난적인 부부공동양육을 보이거나 어머니만 지지적 부부공동양육을 보이는 경우보다 유아의 정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공동양육의 일치유형 및 그 방향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여부와 아동의 제 발달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형으로 일치하는 집단보다 긍정형으로 일치하는 집단에서 아동의 행동발달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하수경, 김원중, 2011)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비지지적으로 일치하는 집단보다 지지적으로 일치하는 집단에서 아동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김지연, 남은영, 2011)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서로의 양육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일치하느냐, 부정적으로 일치하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지적 일치유형 못지않게 아버지

만 지지적 불일치유형(아버지-지지적, 어머니-비난적)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앞선 연구 문제인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부부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며, 특히 아버지의 비난적 부부공동양육만이 정서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도 있다.

이처럼 부부공동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들이 부-자(2자 관계) 관계보다 부-모-자(3자 관계)관계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양육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보고(Belsky & Volling, 1987)가 있었다. 한편,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양육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부부공동양육 유형과는 별개로 1차적 양육자의 역할은 여전히 어머니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버지는 부부공동양육의 유형에 따라서 아버지의 실제적인 양육참여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Jia & Schoppe-Sullivan, 2011) 아버지가 지지적 부부공동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비난적 부부공동양육을 하는 경우보다 실제로 양육참여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아버지만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불일치 유형은 어머니만 지지적 부부공동양육 불일치 유형보다 실제적으로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어머니 혼자 양육에 참여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부부공동양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변인의 차이나 그러한 차이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단순히 부부공동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검증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문화권에서도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자주 연구되지 않았던 부부공동양육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하였다. 특히 부모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여 일치유형을 분류하고, 일치유형의 방향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부부공동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더 많이 강조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양육의 변인도 탐색함에 따라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부각시키고, 아버지 양육의 개념과 중요성을 가족적인 측면에서 시사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 양육 관련 변인을 어머니가 지각한 평가에 의해 보고한 것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자신의 부부공동양육과 양육참여 양상을 직접 보고한 점도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련해서 보고하게 되면 어머니가 부재

할 때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과 양육에 대한 평가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의 지지적인 공동양육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균등하게 표집 되지 못했는데 특히 자녀의 연령, 부모님의 학력 및 가정의 월수입의 변인에서 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전체 연구 대상을 만 3, 4, 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집된 연구대상을 보면 만 3, 4세보다는 만 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는 기관에 설문지를 의뢰한 시기가 연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만 3세반에는 만 3세보다 만 4세가 더 많고, 만 4세반에는 만 4세보다 만 5세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학력도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았고, 가정의 월수입도 5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모집단의 평균보다는 학력과 월수입이 더 높은 집단으로 표집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를 다양한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균등하게 표집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공동양육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질이나 만족도를 함께 고려

하지 못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부공동양육은 부부가 한 팀으로서 양육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팀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질이나 만족도에 따라 부부공동양육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부관계 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한 부부공동양육 척도를 개발하거나 연구에서 부부관계 관련 변인을 포함시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부공동양육과 아버지 양육참여를 탐색적인 측면에서 단순 상관관계만으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부부공동양육과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떠한 경로와 매개변인들에 의해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의 방법 등을 통해 부부공동양육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 양육참여의 의미를 직접적인 양육참여로 한정하였다. 직접적인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근거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를 직접적인 측면으로만 정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로서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보다는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양육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인 참여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접적 양육과 간접적 양육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면접과 같은 정성적 분석 방법을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다각적인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종훈, 성지현 (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87-105.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2-28.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남은영, 박소은 (2014). 어머니 상위정서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및 우울감의 관계: 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5(6), 153-170.

도혜숙 (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미 (2008). 아버지의 양육신념 및 양육참여와 아버지-영아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 아동 · 청소년 · 성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박혜성 (2011).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희정 (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67-91.

배주희 (2011).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지영 (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성숙, 유영달 (2010).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양호도 및 부모 간 양육일치도가 정서적 부적응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5(4), 93- 113.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 여성가족부.

이영환, 이진숙, 조복희 (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 노릇: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이지연, 곽금주 (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 128.

정은주 (2005). 유아의 행동적 ·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존 가트맨, 남은영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 감정코치. 서울: 한국경제신문.

하수경, 김원중 (2011). 아동의 기질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도와 아동행동발달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2(1), 203-218.

한미자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

- 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미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놀이유형별 놀이참여가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s of control*. New York, NY: Freeman.
- Belsky, J. & Volling, B. (1987). Mothering, fathering, and marital interaction in the family triad during infancy: Exploring family system's processes. In P. W. Berman & F. A. Pedersen (Eds.), *Men's transition to parenthood: Longitudinal studies of early family experience* (pp. 37-6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lair, K. A., Denham, S. A., Kochanoff, A. & Whipple, B. (2004). Playing it cool: Temperament,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behavior in preschool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 419-443.
- Block, J., Block, J., & Morrison, A. (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3), 965-974.
- Calkins.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53-72.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62-470.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ienhart, A. (2001). Make room for daddy: The pragmatic potentials of a tag-team structure for shared parenting.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73-999.
- Dienhart, A., & Daly, K. J. (1997). Men and Women co-creating father involvement in a nongenerative culture. In A. J. Hawkins & D. C. Dollahite (Eds.),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 (pp. 147-164). Thousand Oak, CA: Sage.
- EBS 제작팀 (2012). 아이의 정서지능. 서울: 지식채널.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3), 583-602.
- Eisenberg, N., Liew, J., & Pidada, S. (2001). The relations of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with quality of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Emotion*, 1(2), 116-136.
- Eisenberg, N., Smith, C. L., Sadovsky, A., & Spinrad, T. L. (2004). Effortful control: Relational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R. F. Baumerister & K. D. Vohs (Eds.), *Handbooks of self-regulate 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259-28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Emery, R.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 Epstein, K., Pruett, M. K., Cowan, P., Cowan, C., Pradhan, L., Mah, E., & Pruett, K. (2015). More than One Way to Get There: Pathways of Change in Coparenting Conflict after a Preventive Intervention. *Family process, 54*(1), 1-19.
- Fincham, F. D., Hall, J. H. (2005). Parenting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pp. 205-23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03-10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NY: Bantam Books.
- Gumora, G., & Arsenio, W. F. (2002).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5), 395-413.
- Harris, P. L., & Gross, D.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al and apparent emotion. In J. W. Astington, P. L. Harris, & D. R.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pp. 295-314).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 C. H., DeWolf, D. M., Woznia,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4), 879-892.
- Hohmann-Marriott, B. (2011). Coparenting and father involvement in married and unmarried coresid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1), 296-309.
- Howse, R. B., Calkins, S. D., Anastopoulos, A. D., Keane, S. P., & Shelton, T. L. (2003). Regulatory contribu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chievement.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4*(1), 101-119.
- Jia, R., & Schoppe-Sullivan, S. J. (2011). Relations between coparenting and father involvement in families with pre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7*(1), 106-118.
-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 Deković, M. (2006). Parenting and self-regulation in preschoolers: A meta-analysi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6), 561-579.
-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 Deković, M. (2008). Parenting, coparenting, and effortful control in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30-40.
- Keane, S. P., & Calkins, S. D. (2004). Predicting kindergarten peer social status from toddler and preschooler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4), 409-423.
- Koestener, R., Franz, C., & Weinberger, J. (1990). The family origins of empathic concern: A 2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709-717.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Matta, D. S., & Knudson-Martin, C. (2006). Father responsivity: Couple processes and the coconstruction of fatherhood. *Family Process, 45*(1), 19-37.
- McHale, J. P. (1995). Co-parenting and triadic interactions during infancy: The roles of marital distress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85-996.
- McHale, J. P., & Rasmussen, J. L. (1998). Coparental and family group-level dynamics during infancy: Early family precursors of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39-59.
- McHale, J. P., Kuersten, R., & Lauretti, A. (1996).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amily-level dynamics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74*(-), 5-26.
- McHale, J. P., Kuersten-Hogan, R., & Rao, N. (2004). Growing points for coparenting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221-233.
- McHale, J., Rao, N., & Krasnow, A.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ur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1), 111-118.
- Merrifield, K. A. (2009). *Marital and coparenting qualities: Association with parenting cogni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 Minuchin, P. (1985).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56*(2), 289-302.
-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2002). Fathers and families. In M. H. Bornstein (Eds.),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3rd ed., pp. 66-103). New York, NY: Wiley.
- Shapiro, A. F., Nahm, E. Y., & Gottman, J. M. (2011). Bringing Baby Home Together: Examining the Impact of a Couple Focused Intervention on the Dynamics Within Family Pla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3), 337-350.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1차원고접수 : 2015.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5. 12. 08.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9.

Relations among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ddler's emotion regulation

Ip Sae Park

Eun Young Nah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parenting, father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toddler emotion regulation for parents with 3, 4, or 5-year-old childre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ddler emotion regulation was influenced by coparenting—higher levels of supportive coparenting were associated with a child's enhanced emotional control ability—conversely, higher levels of undermining coparenting yielded diminished emotional control ability and greater lability/negativity. Second,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had a parti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oddler emotion regulation. Specifically, greater father caregiving/monitoring was associated with a child's enhanced emotional control. Lastly, an analysis of coparenting consistency types and toddler emotion regulation revealed that substantial differences in toddler emotion regulation were observed in accordance with certain types of coparenting consistency. Subsequent verific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a child's emotional control ability was higher when coparenting was consistently supportive (or inconsistently supportive, so long as the father was being supportive) than for a consistently undermining coparenting style. Consistent support is also beneficial in comparison to inconsistent support if only the mother is being supportive. Moreover, lability/negativity was greater in the consistent undermining group than in the consistent supportive/inconsistent group when only the father is supportive.

Key words :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oddler's emotion regulation